

올 농정 최대 이슈는 ‘메가 FTA 대응전략’ 마련

나주혁신도시 농촌경제연구원 발표 10대 현안

2016년 새해 한국 농업과 농촌이 직면할 최대 이슈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FTA 대응전략과 직접지불제 개편 등 올해 이슈화가 예상되는 10가지 농정 현안을 뽑아 발표했다.

KREI는 10가지 농정 이슈로 ▲메가 FTA 대응전략 ▲한·중 FTA 발효에 따른 발농업 활성화와 수출 확대 ▲농축산물 수급안정 강화 ▲쌀 수급안정과 균형관리 ▲직접지불제 개편을 선정했다.

또 ▲신기술 개발과 신수요 창출 ▲신기술 체제에 따른 농업인력역량 강화 확대 ▲기상이변 대비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관리 ▲6차산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확대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과 지역사회 상생 등을 들었다.

FTA 대응전략으로는 잇단 FTA 체결

발농업 활성화·수출 확대

농축산물 수급 안정 강화

쌀 수급안정과 균형 관리

농업·농촌일자리 창출 등 선정

에 따라 중요 농업 현안을 선제적으로 분석해 FTA 가입비용 최소화 등의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한·중 FTA 발효에 따른 발농업 활성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지역·품목 특성을 고려한 주산지 중심의 발 기반정비, 공동경영체 육성 등 조직·규모화를 주문했다.

생산유통가공을 아우르는 혁신 네트워크 구축과 지속적 연구개발 및 신기술

개발보급 확대 등으로 발농업 경쟁력 제고 기를 마련·대중국 수출 확대도 요구했다.

농축산물 수급안정을 강화하려면 기상 이변에 따른 수급 불안정에 대비해 사전 계도(과수), 수급안정제도 보완(노지채소), 소비촉진운동(축산) 등을 강조했다.

또 쌀 수급안정과 균형관리를 위해 일시적인 풍작 시 시장격리 원칙을 수립하고 논 이용 범용화를 통한 쌀 생산감소도 유도하도록 했다.

직접지불제를 개편해 시장개방에 따른 간접피해 보전을 강화하고 품목 간 형평성 제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것도 제시했다.

이 밖에도 과학기술이 접목된 농업 신기술 개발 보급 등으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루고,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농가소득원과 연계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산림부분의 온실가스를 활용 방안도 모

색할 것을 주문했다.

급격한 기후 변화, 심각한 가뭄 등에 대응해 농업용수 이용체계 재편과 전담조직 신설로 농업용수 이용·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6차산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확대, 늘어나는 귀농·귀촌인구에 대한 비농업 부문 일자리와 농촌형 임대주택 등에도 지원을 확대하도록 제안했다.

KREI관계자는 “미국 금리인상, 중국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국내 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농업·농촌이 가진 기회요인을 활용에 대응하면 현안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착안해 10대 농정 이슈를 도출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10가지 농정이슈는 KREI 농정포커스 120호에 실렸으며 KREI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볼 수 있다.

“농지·관광·농산물 유통가격 알려 드려요”

농어촌공 ‘농어촌 알리미’ 사이트 웹·모바일 오픈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는 지난 18일 수자원, 농지, 관광, 귀농·귀촌, 농산물 유통가격 등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농어촌 알리미(alimi.ekr.or.kr)’ 사이트를 웹과 모바일을 통해 오픈했다고 밝혔다.

농어촌 알리미 사이트는 농어촌주민, 국민, 사업자, 귀농귀촌 등 고객별로 ▲시설 및 재난정보 ▲농촌표준주택설계도 ▲농지연금 및 직불금 계산 ▲농촌체험관광 ▲도시농업 ▲공사 관련 사업발주계획 및 입찰공고 ▲귀농지원정책 등 29개 분야 108종의 정보를 제공한다. 농어촌공사는 정부 3.0 구현과 대국민 소통 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대외고

객이 필요로 하는 농어촌과 공사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해왔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해외사업, 어촌수산, 통계분석자료, 공간정보서비스, 용수공급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난해 쇠고기 수입 18억1500만달러

1995년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고치

한우 가격 고공 행진 탓

전년도보다 8.5% 증가

한우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해 쇠고기 수입 금액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한우가 비싼 틈을 타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 쇠고기가 빠르게 국내 육류 수요를 채우고 있다.

20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쇠고기(신선·냉장·냉동) 수입금액은 18억1566만9000달러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5년 이후 가장 많았다.

작년 이전에 수입액이 역대 최고였던 2014년(16억7331만5000달러)보다도 8.5% 증가한 수치다.

국가별 수입액은 호주(9억7291만3000달러·56.6%)와 미국(7억4900만3000달러·41.3%)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뉴질랜드(7785만2000달러·4.3%), 캐나다(756만2000달러·0.4%), 우루과이(553만4000달러·0.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쇠고기 수입 증량도 2012년 26만4376t, 2013년 26만7578t, 2014년 27만9706t, 2015년 29만5369t으로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수입량은 전년도보다 5.6% 증가했으며 역대 4위 규모다.

수입 쇠고기 수요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 한우 가격이 구제역이 있었던 2010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은 영향이 크다.

정부의 압소 감축 정책에 따라 2012년부터 송아지 생산이 감소했다.

통계청이 집계한 국내 한우 사육 마릿수는 2013년 6월 294만9000마리, 2014년 6월 278만7000마리, 2015년 6월 265만3000마리로 감소해 2년 만에 10% 줄었다.

한우 공급이 줄었지만 정육점형 식당과 캠핑 문화 확산 등으로 한우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또 대형 유통업체의 할인 경쟁으로 재고 부족이 심해진 점도 한우 가격 상승에 한몫했다.

실제로 한우는 수입 쇠고기와 비교해 상당히 비싸 육류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적잖은 부담이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집계한 19일 기준 1등급 한우갈비의 100g당 평균 소매가격은 4천959원으로 호주산 갈비(2403원)나 미국산 갈비(2249원)보다 2배 이상 비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한우육 사육과 가격 동향 및 전망’ 보고서에 올해도 한우 사육 마릿수 감소에 따른 가격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우 소비자 가격이 급등하면 자연스럽게 수입 쇠고기로 대체 수요가 늘고, 올해 수입육 시장 점유율은 더 확대할 것으로 연구원은 예상했다. /연합뉴스



농협광주지역본부와 농협전남지역본부 임직원들이 신년을 맞아 산상 결의대회(사진 왼쪽)와 종합업적평가 전국 1위 달성 축하연을 갖고 새해 보다 힘찬 사업 진행을 다짐했다. <농협 광주지역본부·농협전남지역본부 제공>

광주·전남 농협본부 종합업적평가 전국 1위

광주-전국최초 관공서 무인 로컬푸드직매장 개설

전남-농축산물 판매·연합사업 등 3조3500억 달성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이흥목)와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가 2015년도 단위 종합업적평가에서 각각 시·도 단위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농협의 신경분리 첫해인 2012년 이후 2위를 두 번했으나

2015년 전국 시지역본부 단위 평가에서는 종합업적 1위를 달성했다.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지난해 ‘소통하는 NH농협, 하나되는 일동광주’라는 가치 아래 도농 복합도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농축산물 판매 1800억원을 달성했으며 전국 최초로 관산구청 등 5개 관공서에 무인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 농산물 판매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역시 2015년도 도 단위 종합업적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가 도 단위 종합업적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2011년 이후 4년 만이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지난해 ‘농업에서 미래를, 농촌에서 희망을, 농업인에게 행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은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 NPL매입 •NPL매 •NPL중개 •NPL질권대출 •경락잔금대출 •NPL등기업무

NPL 질권대출 전국 특판공지

국내 최저금리!! 최대 한도!! 제이앤와이도시개발에서로 업계 최고의조건으로 질권대출을 안내합니다.

아파트	주택	토지,상가,공장,숙박,사우나등
3.8~5.5% 전국 ~90%한도까지 개인신용등급 및 소득에 따라 차등	4.0~5.5% 전국 ~90%한도까지 개인신용등급 및 소득에 따라 차등	5.5~6.5% (혹은 7.0%)
중도 無 취급 無 한도약정 無	중도 無 취급 無 한도약정 無	중도 無 취급 無 한도약정 無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 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질권대출협약,JB캐피탈 NPL사업협약,담보부 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기업입니다.

경매 개시 이전, 이후 금융권 근저당권 채권, 개인 가압류채권 후 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 매입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경매경낙잔금대출지원담당

☎ 062-383-4987
본부장 010-4557-3034
이 사 010-2170-3034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도시개발

사업자등록번호 435-87-00319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2461